

## 북한 기록영화의 통사(通史)적 접근 정치·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김 승(건국대학교)

이 글은 통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기록영화가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의 기록영화 촬영소가 당의 요구에 따라 조직과 편제를 변모시켜왔다는 데 주목하고 제작기관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북한 기록영화사에 대한 시기를 구분한 후에 북한 문헌분석을 통해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북한 기록영화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되었으며, 역사적 전개과정의 특징은 첫째, 당면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주제와 형식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현지도 업적을 수록한 영화문헌은 북한 기록영화의 독특한 장르 형식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고 있었고, 주제의 다양화를 통해 부단히 인민성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둘째, 기록영화촬영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듭하였다. 즉, 기록영화촬영소는 해당 시기마다 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그 사명을 실천하는 데 유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통사적 접근을 통해 북한 기록영화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북한 기록영화 변천 이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시기별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 특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제3장 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 기록영화, 북한기록영화사, 북한영화사, 북한영화, 북한 문학예술

## 1. 들어가며

북한은 기록영화를 북한정권 수립 직후부터 직접적인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하여 왔다. 김일성은 “빨치산 투쟁을 할 때에도 어려웠지만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었다”<sup>1)</sup>며,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1946년 5월 ‘영화반’을 조직하였다고 한다.<sup>2)</sup> 지금도 북한 주민은 의무적으로 당국이 지정하는 기록영화를 관람해야 하며, 『조선중앙년감』에서는 선군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기록영화의 선전선동기능이 강조되고 있다.<sup>3)</sup> 북한은 기록영화를 국가주도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즉 대중의 이념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기록영화가 국가 주도로 전개되었다고 하여, 최고지도자의 요구나 당의 지침에 의해 북한기록영화사가 일방적으로 전개되어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전선동의 핵심은 설득이고, 따라서 대중에게 호소되지 못하면 방법을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영화사가 자본의 논리와 국가정책, 그리고 대중문화에 적응하면서

1) “주체의 기록영화와 더불어,” 『조선예술』, 제7호(2006), 8쪽.

2) 문의영, “해방후 영화 예술의 발전,” 『빛나는 우리 예술』(평양: 조선예술사, 1960), 126쪽.

3) 『조선중앙년감 200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4), 199쪽 참조.

전개되어온 것처럼 북한영화사도 그들의 영화미학과 인민대중의 눈높이에 발맞춰 전개되어온 것이다.

이명자는 온전히 한국영화사가 완성되려면 남한의 영화사만이 아니라 북한영화사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다수의 연구자들이 북한 예술영화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기록영화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북한 예술영화사뿐만 아니라 기록영화사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영화사 중 북한 기록영화사라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기록영화사에 대한 시기를 구분한 후에 북한 문헌 분석을 통해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기록영화는 정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록영화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영화의 역사를 통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기록영화촬영소가 당의 요구에 따라 조직과 편제를 변모시켜 왔다는 데 주목한다. 기록영화촬영소의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작기관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북한 기록영화의 시대적 배경 및 흐름을 읽는 통시적인 검토는 북한 기록영화의 생산조건, 사회적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기록영화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역할을 확인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4) 이명자, 『북한영화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서문 vi.

## 2. 북한 기록영화의 시기 구분

### 1) 북한영화사의 시기 구분

북한 기록영화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은 영화사의 시기 구분이다. 남한에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북한 영화사의 시기 구분을 시도하였다. 최척호는 1980년대 후반 북한바로 알기운동이 봄을 이루던 때에 최초로 북한영화를 연구하였다.<sup>5)</sup> 그는 『북한영화사』에서 영화예술의 시기를 김일성 지도기(1926~1961)와 김일성·김정일 공동지도기(1961~1992), 그리고 김정일 지도기(1992~현재)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1961년부터 김정일이 사회 다방면에 거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되지만 공동으로 지도했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민병욱은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북한영화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 보았다. 그는 “북한은 그 사회 전체가 단일 해석공동체이기 때문에, 북한 역사의 시기 구분을 영화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술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영화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사와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기준으로 시기 구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이와 같은 기준 제시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 구분에서 김정일 체제 모색기를 1991년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즉, 김정일이 1980년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후 실질적으로 김일성과 공동 집권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명자는 각 시기별 주요 사건과 인상적인 예술영화를 중심으로 북

---

5) 최척호, 『북한영화사』(서울: 집문당, 2000).

6) 민병욱, 『북한영화의 역사적 이해』(서울: 역락, 2005), 97쪽.

한의 문학예술정책과 영화사를 복합적인 시각으로 조망하였는데, 이는 예술영화의 창작이론과 형상대상을 중심으로 북한영화를 구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기록영화의 시기 구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안지영은 이들 연구가 모두 북한의 예술영화를 위주로 시기 구분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7)</sup>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그동안 남한 연구자들은 북한의 영화예술 갈래 중에서 기록영화의 제작 분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예술영화를 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북한영화사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영화사의 시기 구분

연구자	시기 구분
최척호 <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일성 지도기(1926~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일혁명예술전통기(1926.10~1945.8)</li> <li>2) 영화예술시원기(1945.8~1950.6)</li> <li>3) 영화예술역량 보존기(1950.6~1953.7)</li> <li>4) 주체 영화예술 실험기(1953.7~1961.10)</li> </ul> </li> <li>·김일성·김정일 공동지도기(1961.10~19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화예술 화력집중기(1961.10~1967.6)</li> <li>2) 제1영화혁명기(1967.8~1973.4)</li> <li>3) 영화예술 발전기(1973.4~1982.3)</li> <li>4) 영화예술 총화기(1982.3~1992.5)</li> </ul> </li> <li>·김정일 지도기(1992.5~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영화예술 혁명기(1992.5~1994.7)</li> <li>2) 고난의 행군기(1994.7~현재)</li> </ul> </li> </ul>

7) 안지영, “북한 영화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3.12.6), 115~134쪽.

8) 최척호, 『북한영화사』, 21~23쪽.

연구자	시기 구분
민병욱 <sup>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수난기의 영화(1910~1945.8)</li> <li>·평화적 건설시기의 영화(1945.8~1950.6)</li> <li>·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화(1950.6~1953.7)</li> <li>·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1953.7~1961.9)</li> <li>·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시기(1961.9~1967.7)</li> <li>·김일성 유일체제 시기(1967.7~1980)</li> <li>·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의 영화(1980~1991)</li> <li>·김정일 체제 모색기의 영화(1991~현재)</li> </ul>
이명자 <sup>1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방 공간에서의 토대 구축기(1945~1950.6)</li> <li>·전쟁과 전후 사회주의영화건설기(1950.6~1955)</li> <li>·천리마 영웅 형상기(1956~1966)</li> <li>·주체영화의 출발기(1967~1979)</li> <li>·숨은영웅 형상과 고정 창작단 활동기(1980~1991)</li> <li>·주체사실주의와 변화 수용기(1992~1997)</li> <li>·선군혁명영화기(1998~ )</li> </ul>

북한 문헌에서 소개된 영화예술에 대한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다음 의 문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60년에 발행된 『빛나는 우리 예술』에서는 1940~1950년대 북한 영화예술의 특징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3년 『조선영화사』(제2판)에서는 1920년부터 1986년까지 예술영화, 기록영화, 이동영화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영화를 조망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1945년부터 1986년까지를 6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2006년에 발간된 『조선예술』에서는 빨치산 투쟁기, 1950년대, 1961년 5월, 1970년대, 1980년대의 순으로 연대기적 구분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발간된 『광명백과사전』에서는 별도의 연도 표기 없이 크게 해방 전후로, 세부적으로 6시기로 나누고 있다.

북한 문헌에서 언급된 영화예술의 시기 구분을 정리하면 <표 2>

9) 민병욱, 『북한영화의 역사적 이해』, 97~100쪽.

10) 이명자, 『북한영화사』, 9쪽.

<표 2> 북한 문헌에서 언급된 영화예술의 시기 구분

문헌명	시기 구분
『빛나는 우리 예술』 <sup>1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적 건설 시기의 영화 예술</li> <li>·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영화 예술</li> <li>·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 시기의 영화 예술</li> <li>·제1차 5개년 인민경제계획 수행기간에 있어서의 영화 예술</li> </ul>
『조선영화사』 <sup>1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방전 영화예술(1920~1945.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영화의 시초와 비판적사실주의 영화예술(1920~1930)</li> <li>2) 프롤레타리아영화예술의 출현과 이 시기 영화예술(1931~1945)</li> </ol> </li> <li>·해방후 영화예술(1945~198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화적 민주건설시기(1945.8~1950.6)</li> <li>2)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6~1953.7)</li> <li>3)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1953.8~1960)</li> <li>4) 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과 권리마시대의 시기(1961~1966)</li> <li>5)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 당대표자회 이후시기(1967~1974)</li> <li>6)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시기(1974~1986)</li> </ol> </li> </ul>
『조선예술』 <sup>13)</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빨치산 투쟁기</li> <li>·1950년대</li> <li>·1961년 5월</li> <li>·1970년대: 기록영화의 전성기</li> <li>·1980년대: 다부작형식의 장편 기록영화 제작</li> </ul>
『광명대백과사전』 <sup>1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방전영화</li> <li>·새 조국건설시기 영화</li> <li>·조국해방전쟁시기 영화</li> <li>·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영화</li> <li>·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 영화</li> <li>·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시기 영화</li> </ul>

와 같다. 위의 북한 문헌들이 발행된 시기를 살펴보면, 『빛나는 우리 예술』은 1960년, 『조선영화사』 초판은 1986년, 『조선예술』의 해당 기사는 2006년, 『광명대백과사전』은 2008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이 문

11) 문의영, “해방후 영화 예술의 발전,” 123~211쪽.

12)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1~3쪽.

13) “주체의 기록영화와 더불어,” 『조선예술』, 제7호(2006), 8~11쪽.

14) 『광명백과사전 6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261~306쪽.

현들이 언급한 영화예술의 시기 구분의 특징은 1960년에 발간된 『빛나는 우리 예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헌에서는 공통적으로 해방 이전 김일성의 항일혁명 영도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항일무장투쟁 시기에서 찾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집체적인 창작과 기술·물리적 조건이 요구되는 영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영화사의 시기 구분은 그들의 수령영도사에 영화사를 종속시킨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 북한 기록영화사의 시기 구분

북한이 규정한 영화예술에 대한 시기 구분은 영화예술을 정치의 산물로 복속시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온전히 북한 기록영화사의 시기 구분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국내 학자들의 시기 구분은 북한의 영화사를 재해석한 결과라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록영화의 시기 구분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 문헌과 국내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북한 기록영화사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첫째, 북한 기록영화의 창작 기준이 되는 미학적 창작 방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북한 기록영화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적어도 북한 기록영화가 효과적인 영상재현을 위해서 미학적 측면을 감안하는 한 해당시기 창작 방법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미학적 창작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시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은 1967년 갑산과 숙청 이전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창하였으나 이후에는 주체문학에

술에 입각한 주체사실주의를 기본 창작 이념으로 하였다. 이런 점에서 크게 갑산과 숙청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 기록영화는 시사성을 지닌 매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정치적 사건과 문학예술의 변화시기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록영화는 당 선전선동에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분류한 갑산과 숙청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갑산과 숙청 이후 시기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의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선전하는 시기, 1980년 김정일이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단독으로 집권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기록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기록영화의 여러 갈래 중에서 역사적 문헌성을 지닌 영화문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문헌의 주요 형상대상인 최고지도자가 중점적으로 형상화된 시기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북한 기록영화사의 시기를 구분해보면, 제1시기는 사회주의 건설기로 1945년 해방부터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를 거쳐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1966년까지다. 제2시기는 갑산과 숙청 이후 유일체제 확립기로 1967년부터 1979년까지다. 제3시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집권기로 김정일이 제6차 당대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등장한 1980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다. 제4시기는 김정일 집권기로 1995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까지다. 북한 기록영화사의 시기 구분과 세부 특징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기록영화사 시기 구분

시기명	시기 구분	세부 특징
제1시기	사회주의 건설기 (1945~1966)	·해방이후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를 거쳐 당의 유일 영도 실현과 천리마시대의 시기
제2시기	유일체제 확립기 (1967~1979)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의 확립 시기
제3시기	공동 집권기 (1980~1994)	·제6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1980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의 시기
제4시기	김정일 집권기 (1995~2011)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부터 고난의 행군을 거쳐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까지의 시기

### 3. 북한 기록영화의 역사적 전개 과정

#### 1) 사회주의 건설기(1945~1966)

김일성은 해방 직후에 기술과 물질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제작공정이 단순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중을 계도시킬 수 있는 기록영화의 특성에 주목하여 기록영화제작소를 우선 설립하였다. 국가 체제가 미처 갖춰지기도 전에 제작소를 개소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록영화 제작을 서둘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46년 5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정치문화과 안에 5명으로 구성된 ‘영화반(촬영반이라고도 함)’을 조직하였다.<sup>15)</sup> 영화반은 주로 시보영화와 역사자

15) ‘영화반’의 설립 시기는 북한의 문헌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빛나는 우리 예술』에서는 1946년 5월에, 『조선영화사』(제2판)에서는 1946년 2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영화년감』(1987)과 1971년 7월 5일 자 『로동신문』에서는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1946년 7월 1일에 창립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리령 외, 『빛나는 우리 예술』, 126쪽; 김룡봉,

료촬영을 담당했으며, 1946년에 첫 기록영화로 <우리의 건설>을 제작하였다. 북한은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의 제작을 “참다운 조선 영화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의의있는 사변이었다”<sup>16)</sup>고 평가하고 있다. 영화반은 1946년 8월 ‘북조선영화제작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제작소는 그 후에 설립된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국립영화촬영소라고도 함)’의 모체이다.<sup>17)</sup>

1947년 2월에는 소련의 협조 아래 당시로는 동양 최대의 촬영소라 할 수 있는 총면적 5만 평이 넘는 규모로 평양 교외에 국립영화촬영소를 건설하였다. 또한 월간잡지 『영화예술』을 창간하는 등 건국 초기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영화 사업을 펼쳤다.<sup>18)</sup> 북한은 이 모든 것을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일성 지도의 결실이며, 일제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민족영화예술을 자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9)</sup>

건국 초기 제작비율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이른바 “민주건설”에 관한 주제였다. 대표작으로는 <우리의 건설>(1946), <38선>

『조선영화사』, 제2판, 52쪽; 『조선영화년감 1987』(평양: 문예출판사, 1987), 7쪽, “위대한 수령의 육친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기록영화가 걸어온 25년,” 『로동신문』, 1971년 7월 5일. 한편 국내연구 중에서 최척호의 『북한영화사』와 민병욱의 『북한영화의 역사적 이해』에서는 ‘영화반’의 설립시기를 모두 1946년 1월로 보고 있다. 최척호, 『북한영화사』, 35쪽; 민병욱, 『북한영화의 역사적 이해』, 115쪽. 이 논문에서는 문헌의 발행 연도가 가장 빠른 『빛나는 우리 예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16)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55쪽.

17) 위의 책, 53쪽.

18) 『조선중앙년감 195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359쪽.

19) 창립 당시 촬영소의 조직기구 체계는 제작부와 기술부로 구분하고, 제작부에는 기록영화 및 예술영화 창조소가 있었으며, 기술부에는 녹음, 현상, 조명 등 기술부들이 있었다.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53~54쪽.

(1948), <자라나는 민주모습>(1948), <남북련석회의>(1948)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시보영화를 제작하였다.<sup>20)</sup> 북한 최초의 총천연색 영화는 1950년 5.1절 행사를 찍은 기록영화이다.<sup>21)</sup> 일반적으로 영화사에 있어 새로운 기술적 시도가 있었던 장르는 그 시대의 핵심 장르이다.<sup>22)</sup> 따라서 이 시기 북한영화사의 중심에는 기록영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정일도 해방 직후 수령의 혁명 활동을 소련 사람들이 많이 촬영하였으나 기록영화촬영소가 특히 일을 잘하여 기록영상을 적지 않게 확보했다고 치하한 바 있다.<sup>23)</sup>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모든 힘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영화예술 부문도 전시 체제로 개편하고 영화예술의 기동성과 전투성을 제고케 하였다.<sup>24)</sup> 이에 따라 모든 영화촬영소의 설비들을 후방지대로 옮겼으며, 녹음실과 현상실을 방공시설을 갖춘 지하에

20)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1948년 3월에 제작된 <조선시보> 제1호는 만경대혁명가유가족학원 개원식과 황철 제3호 용광로의 첫 출선, 헝가리 프라하에서 진행된 제1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대표단 환영 등을 담았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행사기록영화가 비교적 많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행사기록영화는 해방 후 새 조국건설에 대한 기대의 반응을 담고 있으며, <승리의 5.1절>(1948), <전국 제1차 체육절>(1949), <전국 민청 제3차대회>(1949) 등이 있다. 이 영화들은 행사 실황을 통하여 민주건설에 나선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보여줌으로써 인민들을 민주주의 건국사상으로 계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의 책, 60쪽.

21)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389쪽. 한편 『조선중앙년감 1957』에서는 기록영화 <8·15 10주년>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총 천연색 영화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5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116쪽.

22) 이명자, 『북한영화사』, 45쪽.

23) 김정일,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09쪽.

24) 문의영, “해방후 영화 예술의 발전,” 136쪽.

새로 꾸렸다. 이렇게 영화촬영소가 제때 마련됨에 따라 전시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전시기록영화를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sup>25)</sup> 북한은 전투가 치열했던 시기에도 영화촬영소에 30대의 촬영기, 105대의 이동영사기와 70대의 선전차 등을 지원했다.<sup>26)</sup> 『빛나는 우리예술』에서는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종군 기록영화 일군들의 투쟁이 각별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sup>27)</sup>

전시 기록영화의 주된 주제는 애국주의에 관한 것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폭로하면서 정의로운 조선 인민의 투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기에 기록영화들이 사건 나열식으로 현상을 단순 기록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사상적 내용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8)</sup>

전후 복구 사업과 함께 기록영화도 사회주의 기초건설에 복무하게 되었다. 1955년부터는 과학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25)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73쪽.

26) “주체의 기록영화와 더불어,” 『조선예술』, 제7호(2006), 9쪽.

27)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예술인들은 인민군들과 함께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생생한 기록을 남겼으며, 후방에서 전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영화로 형상화하였다. 문의영, “해방후 영화 예술의 발전,” 138쪽.

28) 대표적인 기록영화로는 <정의의 전쟁>(1950)을 비롯하여 <승리를 향하여>(1952), <전세계에 고향>(1950), <1950년 5.1절>(1950), <신천대중학살 사건>(1953) 등이 있다. <정의의 전쟁>과 <승리를 향하여>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인민의 영웅적 모습을 수록하고 있고, <전세계에 고향>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적개심과 투지를 과시하고 있다. 한국전쟁 시기 기록영화의 특징은 종류와 형태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전쟁의 현실에 대하여 민감하게 짧고 가동성 있는 단편형식의 시보영화가 주로 많이 제작되었다. 시보 <조국 통일을 위하여>는 40여 편이 제작되었으며, 전쟁 승리를 위한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그렸다.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85~94쪽.

천연색 영화도 자체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과학 영화와 천연색 영화제작의 물질·기술적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29)</sup>

1956년 4월 2일 내각 결정 제32호 『영화예술의 급속한 발전대책에 대하여』의 채택에 따라 영화의 정치사상성의 제고, 고유한 인민적 전통과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영화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려는 제반 대책이 제시되었다.<sup>30)</sup> 그 결과 영화예술을 장르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957년 4월 18일 국립영화촬영소를 예술영화촬영소와 기록영화촬영소로 분리하였다. 제작소를 분리한 이유는 전후 복구가 완료된 후 영화작품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등 영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들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제작소로의 분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술영화촬영소는 예술영화 창작과 더불어 인형 및 그림영화 창작을 담당하고, 기록영화촬영소는 기존의 기록영화 창작과 함께 과학영화 제작을 하게 되었다.<sup>31)</sup>

또한 예술영화뿐만 아니라 기록영화 부문에서도 제작편수가 현저히 확대되었다.<sup>32)</sup> 특히 원대본에 기초한 기록영화 <봉산탈춤>(1956)의 영화화는 민족 고전 발굴 사업에서 첫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

29)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98쪽.

30) 『조선중앙년감 1957』, 37쪽.

31) 『조선중앙년감 195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147쪽.

32) 이 시기의 기록영화는 양적인 면과 함께 질적인 면의 성장이 강조되었으며, 주제 면에서는 항일혁명투쟁과 한국전쟁에 관한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대표적 기록영화로는 <우리의 영웅들>(1954), <전망의 3년>(1954), <강철>(1955), <중국인민지원군>(1955), <건설의 하루>(1955), <새날농업협동조합>(1956) 등이 있다. 문의영, “해방후 영화 예술의 발전,” 160~161쪽.

며,<sup>33)</sup> 1957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꽃봉오리>, <우리 분단의 하루>는 북한의 첫 아동기록영화로 여겨지고 있다.<sup>34)</sup> 시보는 후보로서 기존의 10일보에서 5일보로 전환되어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더욱 기동성 있게 반영하게 되었다.<sup>35)</sup>

북한은 1955년을 현지도영화문헌이 출현한 때로 보고 있다. 『조선영화사』에서는 이 시기 이후에 김일성의 혁명 활동역사를 수록한 장편 기록영화들이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sup>36)</sup> 기록영화 <김일성원수 항일유격전적지>(1955)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장편 영화문헌이다. 북한은 이 영화가 “사적자료의 구체성과 감동성, 해설의 깊은 설득력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sup>37)</sup>고 평가하고 있다.

1960년에 들어서면서 영화예술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맞물려 당성 원칙을 고수하도록 강조되었고, 주로 혁명 전통 및 사회주의 건설을 주제로 제작되었다.<sup>38)</sup> 김일성은 혁명적 영화를 창작하는

---

33) 『조선중앙년감 1957』, 116쪽.

34) 『조선중앙년감 1958』, 147쪽.

35) 『조선중앙년감 195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223~234쪽.

36)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117쪽.

37) 이 영화문헌이 제작된 이후 <김일성수상 량강도 현지도>(1958), <김일성수상 함북도 현지도>(1959), <김일성수상 강원도 현지도>(1959) 등의 현지도영화문헌들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영화문헌들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대한 김일성의 현명성과 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과 충실성 교양에 활용하였다. 위의 책, 119~120쪽.

38) 북한은 기록 및 시보 영화가 당 정책을 기동성 있게 구현하여 시사 속보성을 제고하였고 현실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전형화하여 현실발전에 능동적인 추동력까지 주었다고 평가한다. 『조선중앙년감 196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226쪽.

데 있어서 대중의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즉, 영화는 단편적인 전투 장면만을 보여주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천리마시대 정신을 옹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반영한 기록영화로는 <천리마>(1961), <풍년>(1962), <후치령의 새 노래>(1964)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살림살이기록영화’<sup>40)</sup>가 제작되었다. 김일성은 건축자재, 농업용수 등의 낭비를 지적하며 집안 살림부터 국가 살림까지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양기록영화의 제작을 촉구하였다.<sup>41)</sup> 이들 기록영화는 과거 남한의 문화영화처럼 낡은 생활 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국민을 교양하는 데 사용된 직관적인 영상교재의 역할을 하였다.

1964년 5월 9일 자 『로동신문』에서는 흥미로운 기록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김정일과 이름이 동일한 제일동포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록영화 <정일이에게는 조국이 있다>(1964)는 일본에서도 고치지 못한 앓은뱅이 소년이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다시 걷게 된다는 내용이다.<sup>42)</sup> 이는 천리마 시기의 핵심 구호중 하나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던 김정일의 정치 행보를 비유한

39) 김일성,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4년 12월 8일),”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58~460쪽.

40) 가정의 낭비를 줄이고, 국가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기록영화의 한 종류이다.

41) 김일성, “기록영화를 잘 만들데 대하여: 영화부문일군들과 한 담화(1965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66~268쪽. 이러한 주제의 기록영화로는 <모든 부문에서 구명탄을 도입하자>(1966), <종이를 절약하자>(1966), <예비는 어디에나 있다>(1966), <한치의 천이라도 아껴 쓰자>(1966) 등이 있다.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176쪽.

42) “영화소개 기록영화 <<정일이에게는 조국이 있다>>,” 『로동신문』, 1964년 5월 29일.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2) 유일체제 확립기(1967~1979)

유일체제 확립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영화예술의 역사가 김정일에 의하여 독창적인 영화이론이 확립되었고, 그것이 영화창조실천에 적용된 성과 구현의 과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43)</sup> 김일성은 유일체제 확립기에 들어서면서 영화창작에서 항일혁명전통 주제를 깊이 있고 실감나게 제작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주제도 함께 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sup>44)</sup> 북한은 이 시기의 기록영화가 당의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sup>45)</sup>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정일은 1970년 10월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원들과의 담화에서 기록영화촬영소가 수령이 의도하는 영화 사업을 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기록영화촬영소가 그동안의 해이한 현상을 극복하고 대중의 정치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상교양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기록영화촬영소의

---

43)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205쪽. 조선기록영화촬영소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와 관련된 기록영화 제작의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4월 30일 표창과 선물을 받았다. “김일성수상, 기록영화제작에서 창조적 열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한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창작집단을 표창,” 『로동신문』, 1962년 5월 1일.

44) 김일성, “혁명적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영화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11월 1일),” 『김일성저작집 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48~157쪽.

45) “축하문,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에게,” 『로동신문』, 1976년 7월 2일.

기본임무와 사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우리 당의 역사를 수록하는것입니다. ...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일한다는 긍지와 자각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기록영화촬영소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수령님의 혁명력사, 우리 당의 역사를 수록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한다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sup>46)</sup>

김정일은 그동안 기록영화촬영소가 문화성에 속한 ‘독립채산제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록영화 보급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록영화촬영소를 내각 직속의 ‘국가예산제 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sup>47)</sup> 이처럼 북한은 기록영화촬영소를 중앙기관으로 승격시켜 기록영화의 창작과 보급 사업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인민들에게 수령의 활동을 의무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하려고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영화를 이용하는 한편, 이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새 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끝없이 넓은 앞길을 열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입니다”<sup>48)</sup>

---

46) 김정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원들앞에서 한 연설(1970년 10월 9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72~273쪽.

47) 위의 책, 274쪽.

48)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일군들과 한 담화(1960년 11월 27일),” 『김일성저작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

라고 하였다. 1971년 북한은 기록영화 <피로써 맺어진 조종인민의 친선단결>(1971)을 중국공산당에 선물로 보냈다.<sup>49)</sup>

1971년 7월 6일 자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한 것을 격려하고자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에게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고 전하고 있다.<sup>50)</sup> 또한 조선기록영화촬영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영화제작사업에서 혁명적 열의를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훈장 제1급을,<sup>51)</sup> 1972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다.<sup>52)</sup> 수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의 사기를 올려주어 충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일체제 확립기의 기록영화가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 시기부터 수령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투쟁을 현지에서 지도하는 모습과 그 현지지도의 업적을 수록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53)</sup> 이에 따라 기록영화 <김일성수상 량강도 현지지도>(1963)를 본보기로 제작하였으며, 영화문헌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

판사, 1968; 동경: 구월서방, 1970(번각발행)], 574쪽.

49)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내는 우리 나라 천연색기록영화 <피로써 맺어진 조종인민의 친선단결>에 대한 감상모임과 연회가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1971년 10월 8일.

5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었다. 공화국훈장과 메달 수여식도 있었다,” 『로동신문』, 1971년 7월 6일.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1971년 7월 6일.

52) 『백과전서 4권』(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458쪽.

53)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278쪽.

계시네>(1969) 등을 제작하였다.<sup>54)</sup> 『조선중앙년감』에서는 1977년에 제작된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사적지를 찾아서>(전·후편)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sup>55)</sup> 이 영화는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수록한 것으로, 북한은 이 영화가 근로자들을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하고 있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에 힘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영화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수령의 혁명 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가 다수 창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6)</sup> 특히 1973년은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 발간된 해로, 그해 『조선중앙년감』의 영화예술 부문에서는 “당보의 사설과 같은 거대한 혁명적작용을 할수 있는 영화예술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다한 결과 우리 나라 영화예술은 세계1등급의 혁명적영화예술로 급속히 발전되었다”<sup>57)</sup>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영화사에 1973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해를 김정일의 지도아래 ‘건설의 해’, ‘자력갱생의 해’로 칭하고 영화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체의 힘으로 창작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1974년 1월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대동강 호안에 새로 준공되었다.<sup>58)</sup> 이 시기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

54) 『문학예술사전 상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294쪽.

55) 영화예술 전체 소개 지면은 총 5쪽 분량이다. 이 중에서 이 기록영화에 대한 소개가 2쪽가량을 차지한다. 『조선중앙년감 197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8), 306~308쪽.

56) 『조선중앙년감 197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260쪽.

57) 『조선중앙년감 197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4), 218쪽.

58)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207쪽.

발했던 때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중국 중앙신문기록영화촬영소 사이에 시보영화 소재 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sup>59)</sup>

특이한 점은 갑산과 숙청 직후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에서는 기록영화에 대한 세세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다. 대신 영화예술을 창작함에 있어 10대 정강과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지는 원칙적인 표현들이 눈에 띈다.<sup>60)</sup> 이러한 점은 『영화예술론』이 발간된 후에 『조선중앙년감』의 영화예술 부문에 대한 몇 가지 기술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문학예술의 미학적 요구를 주체적 입장에서 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술영화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sup>61)</sup> 이 시기의 기록영화의 역할은 유일사상교양과 김일성 가계 우상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중앙년감』(1974)의 영화예술부문에서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sup>62)</sup> 이는 김정일이 예술영화 <피바다>(1969)와 <꽃피는 처녀>(1972)를 제작한 후 영화예술 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한다.

### 3) 공동 집권기(1980~1994)

북한은 공동 집권기의 기록영화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힘

---

59)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중국중앙기록영화촬영소 사이에 시보영화소재교환협정이 조인되었다,” 『로동신문』, 1972년 4월 21일.

60) 『조선중앙년감 196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9), 186~187쪽.

61) 『조선중앙년감 1970』(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291~294쪽 참조.

62) 『조선중앙년감 1974』, 219쪽.

차게 전진하고있는 길에서 기록영화는 단순한 력사의 수록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인민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는 고무적인 화폭으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sup>63)</sup>고 평가하고 있다. 1980년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 따라 영화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즉, 수령형상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기록영화의 주제가 다양화된다. 김정일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를 210여 차례 현지지도하고 620차례의 교시를 하였으며, ‘우리 식의 기록영화창조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sup>64)</sup> 예를 들어 민속무용 <봉산탈춤>은 고려말엽부터 북한 지역에서 널리 추어온 가무극이다. 북한은 이 춤을 해방 직후인 1946년 원형 그대로 복구하였고, 1955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기록영화로 촬영하였다.<sup>65)</sup> 그 후 1987년에는 김정일 재편집 지시에 따라 기록영화 <민속무용 봉산탈춤>이 다시 제작되었다.<sup>66)</sup> 북한은 이 기록영화가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재로서 민족문화 유산연구와 민속무용 계승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 집권기에는 기록영화의 수령형상 대상과 관심 대상의 중심축이 이동함에 따라 기록영화촬영소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다. 1980년 이후로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기록영화 촬영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역사문헌적 의의를 가지는 기록영화창작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영

63) “홀륭히 꾸려진 기록영화 창작기지,” 『로동신문』, 1987년 10월 24일.

64) “위대한 현실을 생동한 화폭에 담아: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로동신문』, 1991년 6월 30일.

65) “소식 기록영화 <민속무용 <봉산탈춤>,” 『조선예술』, 제5호(1987), 46쪽.

66) “기록영화 <봉산탈춤>이 나왔다,” 『로동신문』, 1987년 3월 27일.

화문헌과 함께 김정일의 장편 영화문헌들을 다수 제작하였다.<sup>67)</sup> 이에 따라 북한 기록영화는 당 역사의 기록자, 당 정책의 적극적인 해설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김정일의 영화문헌으로는 <빛나는 40년>(1985)이 있다. 북한은 이 영화문헌에 대해 지난 40년간 세기적인 진보와 번영을 이룩한 사상주제적 과제를 깊이 있게 밝혀주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8)</sup> 김정일에 대한 영화문헌 중 하나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1983)이 있다. 북한은 이 영화가 일본TV에서 계속해서 방영되었으며, 일본국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9)</sup> 더불어 이 기록영화의 제작과 보급은 ‘조중친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사변이라고 평가한다.<sup>70)</sup>

이 시기의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계도하는 기록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다.<sup>71)</sup> 또한 주체사상의 세계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북한은

---

67)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399쪽.

68)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404쪽.

69)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이 중국공산당 호요방과 지도간부들의 환영을 받으며, 베이징에 도착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로에 오르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의 새시대를 열어 놓았다.” 『로동신문』, 1983년 10월 6일.

70) “조중친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역사적사변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에 대한 기록영화,” 『로동신문』, 1983년 11월 1일.

71) 대표적으로 기록영화 <3대혁명의 선구자들>(1987), 기록영화 <한생을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1987) 등이 있다. <3대혁명의 선구자들>은 당의 요구인 3대 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이 어떻게 잘 벌어지고 있는지와 지난날의 평범한 사람들이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시대의 선구자들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생을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빛나게 장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리국, “새로운 기록영화들이 나왔다,” 『로동신문』,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수령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대열이 급속히 늘어났다고 주장한다.<sup>72)</sup> 이렇게 혁명에 대한 지지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의 대외선전수단의 하나인 기록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였다. 기록영화 <만수대예술단 이탈리아방문공연>(1981)은 북한의 국립 평양만수대예술단이 이탈리아의 로마와 지방도시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공연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령과 당중앙의 영도 아래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위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73)</sup> 또한 기록영화 <조국에서 총련결성 30돐을 기념>(1985)은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 의장을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한 제일조선인감사단의 방북을 수록한 기록영화이다.<sup>74)</sup>

1980년대 기록영화에서도 ‘80년대 속도’ 창조를 강조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 들어서 다부작 형태의 기록영화들이 제작된다. 북한의 다부작 기록영화는 다부작 예술영화 <조선의 별>, <민족과 운명> 등의 제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에서 다부작 영화의 제작 경향은 나치의 대작 기록영화 제작 사례와 같이 장엄미나 숭고미(sublimity)의 과시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75)</sup> 6부작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은 김정일의 정력적인 지도로 완성된 첫 다부작 기록영화이다.<sup>76)</sup> 또한 김정일의 주도로 다부작 장편기록영화 <위대한 력

---

1987년 8월 2일.

72)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 407쪽.

73)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안겨주는 자랑찬화폭들: 새로 나온 기록영화들을 보고,” 『로동신문』, 1981년 2월 5일.

74) “새 기록영화들이 나왔다,” 『로동신문』, 1985년 8월 4일.

75)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서울: 생각의 나무, 2002), 26쪽.

76) “명작에 깃든 이야기 다부작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이 완성되기까지,” 『조

사>가 총 20부로 기획되었다. 이 영화제작에 참가한 창작가들에게는 국가표창을 수여하였다.<sup>77)</sup>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다룬 기록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는데, 이 기록영화들은 수령의 품속에서 부러움 없이 사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기록영화는 주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북한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기록영화를 통해 체제선전보다는 주제의 다양화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작으로 기록영화 <창광원>(1980), <만경대유회장>(1983), <세계요술왕(환상요술)>(1985), <조선의 사시절>(1985) 등이 있으며, 이 영화들은 모든 은덕을 공식적 활동을 시작한 김정일에게 돌리고 있다.<sup>78)</sup>

『조선중앙년감』(1987)에서는 기록영화 부문에 대한 기술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처음으로 영화예술 부문에서 김일성의 교시 대신에 김정일의 교시가 먼저 등장한다.<sup>79)</sup> 이를 통해 김정일에게로의 확실한 권력이동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선예술』, 제6호(2000), 15쪽.

77) “주체의 기록영화와 더불어,” 『조선예술』, 제7호(2006), 10쪽.

78) 대표적으로 기록영화 <창광원>에 대해 살펴보면, 이 기록영화는 유희시설과 운동기구를 갖춘 일종의 복합 체육관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모든 은덕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 인민에게 들려주고있는 사랑과 배려의 감동적인 화폭으로서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는 것이다.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화폭: 기록영화 <<창광원>>이 나왔다,” 『로동신문』, 1980년 12월 4일.

79) 『조선중앙년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274쪽.

#### 4) 김정일 집권기(1995~2011)

김정일 집권기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서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수반이 된 후 사망할 때까지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 후 2000년까지 40여 편의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다.<sup>80)</sup> 그런데 김일성 사망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주제기록영화가 꾸준히 제작되었다.<sup>81)</sup>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혁명성을 ‘인민성’<sup>82)</sup>에 우선하면서도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는 문예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sup>83)</sup> 이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을 추모하고 흠모하는 내용의 기록영화 중에는 대표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1994), <위대한 생애의 1994년>(1994),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1995) 등이 있다. 또한 다부작 기록영화 <조국광복을 위하여>가 총 20부로 제작되었다. 이 다부작 기록영화는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영상화한 것이다.<sup>84)</sup> 『조선중앙년감』(1994)에서는 이 영화를 “회고록에 기초하여 그이의 혁명활동력사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기록영화”<sup>85)</sup>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8월 북한은 해방 58주년

---

80) “위대한 태양의 역사를 길이 전하는 불멸의 화폭,” 『로동신문』, 2000년 7월 9일.

81) 『조선중앙년감 199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185~189쪽 참조.

82) 인민성은 인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91~94쪽.

83)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67쪽.

84) 주요 내용은 김일성이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고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었다는 것이다. “불멸의 혁명업적을 수록한 기록영화들 제작,” 『로동신문』, 2004년 7월 4일.

을 맞아 이 기록영화의 20부를 공개했다.<sup>86)</sup>

1996년부터는 김일성 유훈이 아니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당 중심으로 몽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조선중앙연감에서 기록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예술 분야의 기술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시대적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작 주제로는 고난의 행군을 진두에서 지휘하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기록영화가 다수이며,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형발전소>(1997), <풀먹는 집짐승기르기>(1998), <활발히 진행되는 토끼기르기>(1999) 등이 제작되었다. 또한 <미제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수>(1996)라는 기록영화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영화를 통해 내부에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일반적으로 과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과학영화 제작을 정권 초기부터 강조해왔는데, 1962년부터 과학영화 부문에 대한 기술시보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였다.<sup>87)</sup> 1996년 11월 북한은 기록영화를 제작하던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의 과학영화 제작 부문을 통합하여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88)</sup> 이로써 기록영화와

---

85) 『조선중앙년감 1994』(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4), 208쪽.

86) 노동신문에서는 이 영화가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중에서 제1부 항일혁명편 8권에 기초해 제작되었다고 전한다. “기록영화 <<조국광복을 위하여>> 제 20부 상영.” 『로동신문』, 2003년 8월 16일.

87) 『조선중앙년감 196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246쪽.

88) 북한 문헌에서는 두 촬영소의 구체적인 통합 시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997년 2월 24일 자 『로동신문』에서 처음으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1997년 이후에 제작된 기록영화부터는 엔딩 크레딧의 제작연도가 1997년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1996년 하반기부터 1997

과학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통합 영화제작소가 설립되었다.

기록영화 부문과 과학영화 부문의 통합은 기록영화의 발전을 위해 서라기보다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과학적인 영농법과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체계적인 과학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축적된 기록영화의 역량을 과학영화 부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행해진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의 통합은 김정일이 주장한 선군정치에 기초하여 고난의 행군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요구에 맞게 기록, 과학영화제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위대한 선군시대의 우리 영화예술은 마땅히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로 맥박치고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새로운 대전성기를 펼쳐나가

---

년 상반기 사이에 통합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민병욱은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의 설립 시기를 1996년 11월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민병욱의 선행연구 기준을 따르지만, 이에 대해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창작가들과 일군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1997년 2월 24일; 민병욱, “북한 영화의 제작과 수용과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17호(2006), 178쪽. 또한 민병욱은 같은 글에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2000년에 다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조선과학영화촬영소로 각각 분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분리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북한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로동신문』에서는 그들의 기록영화촬영소를 여전히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한 1997년 이후의 북한 기록영화를 조사한 결과, 엔딩의 스탭스크롤 자막에서 제작처가 일관되게 조선과학영화촬영소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사전류에서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아직도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 대한 소개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 기사 참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판 건립: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막식 진행,” 『로동신문』, 1998년 12월 18일; “우리 당 력사수록의 새시대를 펼치시어: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 어린 위대한 령도,” 『로동신문』, 2005년 12월 18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06년 7월 2일.

야 합니다”<sup>89)</sup>라고 하였다.

북한은 1997년을 ‘과학의 해’로 정하고 최신식 컴퓨터와 도서들을 배포하고 문화건설 부문의 발전을 독려하였다.<sup>90)</sup>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록영화촬영소가 실력제일주의 구호를 들고 창작 기량을 높이기 위해 영화제작설비들의 현대화, 컴퓨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sup>91)</sup> 기록영화 편집의 화상처리 공정에서는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넌리니어(non-linear) 제작시스템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sup>92)</sup> 이 제작방식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기록영화를 제작하여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제작되는 다수의 기록영화는 넌리니어 제작시스템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런데 제작의 수준은 각 편별로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기록영화 <공동사설관철예로 부르는 힘있는 선전화들(1)>(2007)<sup>93)</sup>과 <공동사설에 제시된 평양시 군중대회>(2008)<sup>94)</sup>는 카메라워킹이 안정적인 반

---

89)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작가들과 종업원, 일군들에게,” 『조선문학예술년감 2007』(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36쪽.

90) 『조선중앙년감 199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8), 222쪽.

91) 『조선문학예술년감 2007』, 36쪽. 영화기법 측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에 제작된 예술영화 <살아있는 영혼들>은 북한판 타이타닉에 비견된다. 특수효과를 비롯한 영화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5·18 영화과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409~410쪽.

92) “사진방문기, 더없는 긍지와 보람속에: 창립 60돐을 맞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조선예술』, 제7호(2006), 43쪽 사진 참조.

93) 이 기록영화는 공동사설을 발표한 후에 전투적인 선전화 150여 점을 소개한다. 분량은 9분 37초이다.

94) 이 기록영화는 약 55분 분량으로 증계방송 형식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사설을

면에 풀 샷(full shot) 다음에 풀 샷을 붙이는 등 영상문법에 어긋나는 편집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록영화 <대흥단의 감자꽃바다>(2006)<sup>95)</sup>는 촬영 시 지미잡(jimmy jib)과 촬영용 크레인을 동원하여 카메라워킹이 자연스럽게 편집도 안정적이다. 영상미학적 관점에서 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기록영화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와 같은 공식적인 촬영소에서만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1989)과 같은 경우 평양출판사 소속 ‘내나라비디오 제작소’에서 제작하였는데, 이 기록영화는 북한의 종교문제를 다룬 것으로 당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총련이 걸어온 영광의 길>(1993)은 ‘총련영화제작소’가 단독으로 제작하였으며, <잊지말자 지난날의 처지를>(1990)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와 ‘총련영화제작소’가 공동 제작하였다. 이는 일본의 재외국민 차별정책과 일제 강점기의 참상을 폭로하기 위해 일본 현지 영상자료를 활용하기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당 직속 기관으로 추정되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영화문헌편집사’<sup>96)</sup>와 ‘평양연극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sup>97)</sup> 등이 있다.

1999년부터는 기록영화의 제작 편수도 증가하게 된다. 서서히 경제

---

전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다음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1)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박병점 동지 연설, 2) 결의토론: 노동계급 대표, 농업근로자 대표, 지식인대표, 청년대표, 3) 결의문 낭독 순이다.

95) 이 기록영화는 10분 25초의 분량으로 대흥단 감자꽃바다, 양식장, 울림폭포와 같은 3곳의 북한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96) 이곳에서 제작한 대표적인 기록영화는 <위대한 선군조선의 어머니>(2011)이다.

97) 대표적으로 제작한 기록영화는 약 19분 분량의 <축복받은 행복동아들>(2011)이다.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주제기록영화가 많이 등장하였다. 자강도에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과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내용을 반영한 <자강도 사람들>(1998), <강계정신의 창조자들>(1998) 등이 있다.<sup>98)</sup>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중앙연감의 영화예술 부문에서는 선군의 기치 따라 총진군해나가는 투쟁을 고무시키는 내용이 많아졌다. 김정일 사망 전까지 기록영화의 주제는 대부분 선군시대의 위대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이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며, <선군혁명령도로 위대한 전환을 마련하시여>(2003), <선군시대 숨은 영웅들>(2005), <위대한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여>(2007) 등을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민의 조국애와 향토애를 강조한 <이 땅을 사랑하라>(2003), <조국의 평범한 공민들>(2003)이 제작되었다.<sup>99)</sup> 이러한 기록영화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지면서 체제 결속을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월(주체 89년 1월) 기록영화촬영소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소속되었다.<sup>100)</sup>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에서도 다수의 기록영화를 제작하였는데, 러닝타임이 짧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TV방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sup>101)</sup> 현재 기록과

98) 『조선중앙년감 199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9), 202쪽.

99) 『조선중앙년감 2004』, 199~200쪽.

100) 『조선대백과사전 17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562쪽.

101) 대표적으로 제작한 기록영화는 약 25분 분량의 <백두산해돋이>(1999), 약 19분 분량의 <금수산기념궁전>(2000), 약 18분 분량의 <물고기를 더 많이 기르자>(2000), 약 17분 분량의 <영생하는 천리마시대 일군들>(2000), 약

학영화촬영소는 내각 문화성이 관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02)</sup> 제작인력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약 1,000명을 비롯하여 별도로 조선인민군 기록영화촬영소 약 500명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03)</sup> 이와 같이 대규모의 제작 인력구성은 북한에서 기록영화의 위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북한의 기록영화를 통사적인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록영화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북한의 기록영화촬영소가 당의 요구에 따라 조직과 편제를 변모시켜왔다는 데 주목하고 제작기관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여기서 밝혀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기록영화는 당면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주제와 형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민주건설, 한국전쟁 시기에는 애국주의, 전후 복구시기에는 사회주의 기초건설에 복무하였다. 1955년부터는 김일성의 현지지도의 업적을 수록하는 영화문헌을 제작하였다. 영화문헌은 북한 기록영화의 독특한 장르이다. 시대의 흐름과 조우하여 새로운 장르를 형성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그동안의 수령형상 일변도에서

---

19분 분량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말로>(2000), 약 30분 분량의 <칠보산>(2000)과 <뜨거운 동포애>(2001) 등이 있다.

102) 통일부 북한 내각조직 편제자료와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 안찬일 외, 『10년 후의 북한』(고양: 인간사랑, 2006), 216쪽.

103) 참고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약 1000명, 만수대 예술단 약 400명, 피바다가극단 약 600명, 평양교예단 약 60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찬일 외, 『10년 후의 북한』, 220쪽 참조.

탈피하여 기록영화의 주제가 다양화된다. 선전선동의 핵심은 설득이기 때문에 인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술적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선군의 기치 따라 총진군해나가는 투쟁을 고무시키는 주제가 많아지고 있으며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제작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록영화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2005), 기록영화 <지울수 없는 일본의 죄악>(2005)과 같은 일부 영화에서는 기존의 서예체의 스탭스크롤을 컴퓨터 자막으로 대체하여 표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기록영화촬영소는 1946년에는 영화반에서 북조선영화제작소로, 1947년에는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로, 1957년에는 조선기록영화촬영소로, 1996년에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로 변천을 거듭하였다. 북한의 기록영화촬영소가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해당 시기의 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그 사명을 실천하는 데 유리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은 극영화에 비해서 비교적 소규모 장비로 제작이 가능한 장르인 기록영화를 정권 초기부터 선전선동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기록영화를 이데올로기 선전수단의 역할과 기능을 인지하고, 이데올로기 전파 수단이자 대중 교화용으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기록영화는 당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해설·선전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수령과 당의 혁명 역사를 기록하고, 사회적 현상과 현실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재현하는 역사의 증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통사적 접근을 통해 북한 기록영화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북한 기록영화 변천 이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기록영화 검토와

더불어 각 시기별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접수: 3월 16일 / 수정: 4월 1일 / 채택: 4월 4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룡봉, 『조선영화사』, 제2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일군들과 한 담화(1960년 11월 27일),” 『김일성저작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동경: 구월서방, 1970(번각발행)).

\_\_\_\_\_,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4년 12월 8일),”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기록영화를 잘 만들데 대하여: 영화부문일군들과 한 담화(1965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혁명적영화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영화부문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11월 1일),” 『김일성저작집 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70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문의영, “해방후 영화 예술의 발전,” 『빛나는 우리 예술』(평양: 조선예술사, 196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2) 기타 자료

『광명백과사전』, 제6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문학예술사전』, 상권(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백과전서』, 제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조선대백과사전』, 제17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조선문학예술년감』(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조선영화년감』(평양: 문예출판사, 1987).

『조선예술』.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민병욱, 『북한영화의 역사적 이해』(서울: 역락, 2005).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서울: 생각의 나무, 2002).

안찬일 외, 『10년 후의 북한』(고양: 인간사랑, 2006).

이명자, 『북한영화사』(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최척호, 『북한영화사』(서울: 집문당, 2000).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 2) 논문

김 승,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 특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민병욱, “북한 영화의 제작과 수용과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17집(2006).

안지영, “북한 영화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2013.12.6).

# A Historical Survey of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A Focu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Kim, Seung(Konkuk Universi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and function that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plays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of North Korea. In addition,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and formation of North Korea's documentary film studio changed over time in accordance with the ruling party's demands and also presents the periodical changes of the production organization. To this end, this paper divides the history of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into periods and then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through an analysis of North Korean literature.

As a result, the history of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has largely been classified into four st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re investigated. Firstly, there were changes to subject and form in accordance with immediate political demand. In particular, film literature that showcased the supreme leader's on-site leadership met the demands of the time by forming a new, unique, genre of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where the producer's constantly endeavor to improv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leader. Secondly, the documentary film studio underwent many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In other words, in every applicable period it has played a function and role, which was advantageous for creating pro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political demands.

This paper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vide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by identifying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films through the historical survey. However, a more in-depth follow-up study that conducts specific text analyses on each period based on the factors outlined above is also required.

Keywords: Documentary films of North Korea, history of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history of North Korean films, North Korean films,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